

다니엘서 - 번호 51

팔모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시간과 언어의 주재자를 드러내다

Jeff Pippenger

2024-01-15

다니엘서 8장 13-14절에 나오는 "말하는 어떤 거룩한 자"는 팔모니이신 그리스도이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로 밝혀지는데, 이는 다른 놀라운 진리들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놀라운 언어의 대가로도 드러내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함께 시간과 언어의 주재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팔모니(비밀을 헤아리시는 분)로서 그리스도께서 재림주의의 중심 기둥을 세우는 그 두 구절에서 자신의 그러한 성품을 소개하신다는 사실의 의미와 깊이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다. 그러나 비밀을 헤아리시는 분이 드러내시기로 선택하신 비밀들은 우리가 알아보고 수호해야 할 책임이다.

은밀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29:29.

밝혀진 비밀 가운데 하나는 비밀들을 헤아리시는 분(팔모니)이 곧 '말하던 어떤 성도'라는 것이며,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두 구절에서 재림주의의 중심 기둥이 확인된다. 그 두 구절에서 그 기묘한 계산자는 그가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1798년에 봉인을 떼어 드러내신 '지식의 증가'를 지목한다. 그 두 구절에서 '지식의 증가'를 대표하는 밀려의 꿈의 보석들이 팔모니의 손의 지시에 따라 하박국의 두 판 위에 기록되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한 거룩한 자가 말하고 있었고, 또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던 그 특정한 거룩한 자에게 이르되, 매일 드리는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범죄에 관한 이상, 곧 성소와 군대가 함께 짓밟히도록 내어줌을 당하는 일이 어느 때까지이겠느냐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13, 14.

다니엘은 성경 예언에 등장하는 왕국들에 대한 예언적 환상을 받고 13절과 14절에서 나오는 천상의 대화를 들은 뒤, 그 "환상"을 이해하고자 했다.

나, 곧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서 있었다. 또 내가 올라이 강 양쪽 강둑 사이에서 사람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불러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다니엘 8:15, 16.

다니엘이 이해하려고 하는 '환상'은 'chazon' 환상이지만, 'mareh' 환상은 가브리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라고 명령받은 것이다. 모든 사실은 저마다의 함의를 지니며, 이 사실을 놓치면 본문의 구조와 설계가 본질적으로 무너진다. 15절에서 다니엘이 'chazon' 환상을 이해하려 할 때, 'mareh'는 숨겨져 있지만 여전히 드러나 있는데, 이는 'appearance of a man'(가브리엘)에서 히브리어 'mareh'가 'appearance'로 번역되기 때문이다. 15절에는 'vision'으로 번역된 두 단어가 모두 나타난다. 다니엘은 15절에서 'chazon'을 이해하려 하지만, 16절에서 팔모니는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이 'mareh'를 이해하게 하라고 명한다. 이 두 절의 구성은 의도적이며, 두 단어 사이의

연결성과 차이를 강조한다.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이 "mareh"를 이해하게 하라고 명하는 이는 팔모니이다. 가브리엘에게 명하시는 이는 물 위에 서 계신 분이시며, 가브리엘은 그분의 음성, 곧 "올라이의 두 기슭 사이에서 나는 사람의 음성"을 들었다. 두 기슭 사이로 흐르는 것은 올라이 강이며, 성경에서 물 위에 서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과 더불어, 그리스도는 대천사로서 천사들에게 명하시는 분이시다. 두 기슭 사이에서 들린 음성은 13절의 "그 어떤 성도"의 음성이며, 다니엘이 "mareh" 환상을 이해하도록 가브리엘에게 명하신 것도 그분의 말씀이다. 다니엘서 12장에서 그리스도는 다시 그 강의 두 기슭 사이에 계신다. 12장에서 그는 세마포 옷을 입고 영원히 살아 계신 이를 두고 맹세하신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그 책을 봉하여 끝날 때까지 두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하나는 강가 이쪽 둔덕에, 다른 하나는 강가 저쪽 둔덕에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그 사람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살아 계신 이를 두고 맹세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요, 또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여 버리는 일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일이 마치리라." 다니엘 12:4-7.

강물 위에 계셨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였고", 그는 8장에서 가브리엘에게 명하신 그 사람과 동일하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손을 들어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셨지만, 거기서는 바다와 땅 위에 서 계신다.

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시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지체함이 다시 없으리라 하니라. 요한계시록 10:5, 6.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는 8장에서 강 양쪽 둑 사이에서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시고, 12장에서 '기이한 일들'의 '끝'이 언제일지를 밝혀 주신 팔모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는 '사자'처럼 포효하신 분인데, 거기서는 그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셔서 그 책을 여시고 그 책의 일곱 인을 떼실 권세를 얻으셨다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마치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었고,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다.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였다. 요한계시록 5:5-7.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그리스도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의 인을 떼기에 이기신 어린양이시다. 다니엘서에서 그분이 물 위를 거니시든지, 요한계시록에서 한 발은 바다에, 다른 한 발은 땅에 디디고 계시든지, 이러한 각각의 예언적 표상들은 예언의 때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을 봉하시기도

하고 풀어 주시기도 한다. 그가 다니엘서의 책을 봉하셨듯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일곱 우레도 봉하셨다.

요한에게 지시하신 그 능하신 천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가 오른발을 바다에, 왼발을 육지 위에 두신 것은 사탄과의 위대한 대쟁투가 마무리되는 장면에서 그분이 담당하시는 역할을 보여 주신다. 이러한 자세는 온 땅 위에 대한 그분의 지고한 권능과 권위를 나타낸다. 그 대쟁투는 시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격렬하고 단호해졌으며, 어둠의 권세의 주도면밀한 활동이 절정에 이르는 결말의 장면까지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사탄은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온 세상과 교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그 능하신 천사는 주의를 요구하신다. 그는 큰 음성으로 외치신다. 그는 진리에 대항하기 위해 사탄과 연합한 자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지닌 권능과 권위를 보이실 것이다.

이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낸 뒤에,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한에게도 다음과 같은 명령이 주어진다: '그 일곱 우레가 말한 것들은 봉하여 두라.' 이것들은 장차 그 순서대로 드러나게 될 미래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자기 분깃에 설 것이다. 요한은 작은 책의 봉인이 풀리는 것을 본다. 그러면 다니엘의 예언들은 세상에 전해질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메시지들 안에서 제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작은 책의 봉인 해제는 때와 관련된 메시지였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다. 하나는 예언이요 다른 하나는 계시며, 하나는 봉함된 책이요 다른 하나는 열린 책이다. 요한은 우리가 말한 비밀들을 들었으나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일곱 우레로 표현된 요한에게 주어진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을 제시한 것이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7권, 971쪽.

팔모니, 곧 8장과 12장에서 물 위에 계신 그 사람으로 묘사되는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는 힘센 천사이시다. 그는 자신의 말씀을 봉하시고 봉함을 푸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대천사 미가엘이시므로 가브리엘에게 명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그를 대적하여 휘방하는 고발을 감히 제기하지 않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유다서 1:9.

미가엘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그 이름은 그분이 천사들의 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부활시키는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낸다.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이다. 느부갓네살이 세 의인과 함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 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는 미가엘을 본 것이었다. 또한 대천사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군주이신데, 다니엘서 8장 11절의 성취로 이교 로마의 작은 뿔이 십자가에서 그분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였던 바로 그분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네게 보여 주리라. 이 일들에 관하여 나와 함께하는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외에는 없느니라. 다니엘 10:21.

천사들을 지휘하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며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때를 결정하는 이는 미카엘이다.

“그 때에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서 있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며, 또 그 때까지 어느 민족이 생긴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가 있으리라.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환난의 때가 오면 모든 일이 판결된다. 더 이상 은혜의 기간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자비가 없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이 그분의 백성에게 찍혀 있다. 용의 군대에 의해 동원된 세상의 권세들과의 치명적인 투쟁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이 작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방어로 삼는다. 지상의 최고 권위에 의해 칙령이 내려져, 그들이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아래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도우시기를! 그분의 도우심 없이 그렇게 두려운 투쟁 속에서 그들이 그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증언 5권, 212쪽.

유다 지파의 사자가 봉인을 풀어 드러내는 마지막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거기에는 그분이 자신의 예언의 말씀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설계와 구조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세마포 옷을 입고 물 위에 서서, 손을 들어 영원히 살아 계신 이를 두고 맹세하며, 사자처럼 외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게 하시는 그분은, 다니엘의 책을 봉하시고 요한계시록의 일곱 우레를 봉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의 봉인을 푸시는 분도 그분이며,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요, 일어나서 은혜 기간의 끝을 선포하시는 큰 군주이다. 팔모니가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이 ‘mareh’ 환상을 깨닫게 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분은 바로 그것을 뜻하셨다.

그는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이 “chazon” 환상을 이해하게 하라고 명하지 않았다. “chazon” 환상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성경 예언의 왕국들에 관한 환상이며, 또한 기간에 대한 질문 속에서 13절에 언급된 그 “환상”이기도 하다. “그 환상은 얼마 동안이었느냐?” “chazon” 환상은 성소와 군대를 짓밟는 황폐하게 하는 세력, 곧 상번제(이교)와 불법(교황주의)에 관한 것이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한 거룩한 자가 말하고 있었고, 또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던 어떤 거룩한 자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범죄에 관한 그 이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 성소와 군대가 함께 짓밟힘을 당하겠느냐 하더라. 다니엘 8:13.

그리스도께서는 팔모니(기묘하게 수를 세시는 이)로서 “chazon” 환상이 “얼마 동안” 일지를 묻는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신다. “이천삼백 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 후 다니엘은 “항상 드리는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범죄”로 인해 “성소와 군대가 함께 짓밟히게 되는” 것과 관련된 그 “chazon” 환상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다니엘로 하여금 “mareh” 환상을 이해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모든 사실이 그 의미를 지닌다. “mareh” 환상은 26절에서 언급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을 가리킨다.

네게 전해진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되니, 그러므로 그 환상을 봉하여 두어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8:26.

그 절에서는 "vision"이라는 단어가 두 번 언급된다. 첫 번째 언급은 "mareh" 환상이고 두 번째는 "chazon" 환상이다. "mareh" 환상은 "the evening and mornings"의 환상이다. "evening and mornings"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며, 26절에서와 같이 항상 "evening and mornings"로 번역된다. 이것이 "evening and mornings"와 다르게 번역된 성경의 유일한 곳은 14절로, 거기서는 단순히 "days"로 번역되어 있다. 14절의 실제 히브리어는 "Unto twenty-three hundred evenings and mornings."라고 되어 있다.

재림주의의 중심 기둥이 되는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녁과 아침"이 단순히 "날들"로 표현된 유일한 구절이다. 모든 사실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으며,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Palmoni가 의도적으로 그 구절을 강조하셨다는 점이다. 그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들의 마음을 이끄시어, 그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쓰이는 방식과는 다르게 기록하도록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다. 이 사실에서 도출해야 할 요점은,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이 'mareh' 환상을 이해하도록 하라고 명령될 때, 그것은 성소와 군대를 짓밟는 것과 관련된 'chazon' 환상이 아니라 1844년의 나타남에 관한 환상을 이해시키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1844년 10월 22일 성소의 정결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나타남에 관한 것이다. 1844년 10월 22일의 나타남에 관한 그 환상은 성소가 짓밟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소의 정결에 관한 것이다. 그날에 예언적인 나타남이 있었는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이르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다니엘 8:14에 제시되어 있으며,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오는 일이 다니엘 7:13에 나타나 있고, 주께서 당신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는 말라기가 예언한 일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동일한 사건에 대한 묘사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신랑이 혼인 잔치에 이르는 것으로도 표상되어 있다." The Great Controversy, 426.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1844년 10월 22일에 그분의 성전에서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예언적 나타나심을 이해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때문에 가브리엘은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날짜에 대한 두 번째 증거를 다니엘에게 주었다. 이는 진리가 두 사람의 증언으로 확립된다는 성경적 원리를 어떤 형태로든 기록한 모든 성경 저자들을 가브리엘이 인도했기 때문이다. 가브리엘이 다니엘로 하여금 1844년 10월 22일을 이해하게 하려면, '나타남의 환상'을 확립할 두 번째 증거가 필요했다.

가브리엘은 먼저 다니엘이 "chazon" 환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바람을 다루는 것으로 자신의 일을 시작하며, "chazon" 환상이 1798년의 "끝날"에 결말을 맺는 환상임을 지적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리고 나는 울라이 강의 두 둑 사이에서 한 남자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외쳐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였다. 그러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다. 그가 오자 나는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나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으라. 이 환상은 끝날 때를 가리키느니라. 다니엘 8:16, 17.

이전 절에 나오는, 곧 "끝날"에 관한 그 "환상"은 "chazon" 환상이며, 다니엘서에서의 "끝날"은 1798년이다. 이것이 다니엘이 이해하고자 했던 "환상"이었으나, 가브리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라고 지시받은 "환상"은 이것이 아니었다. 그 일을 위해 가브리엘은 둘째 증인을 세울 것이다.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가 가까이 오자 나는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나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이여, 깨달으라. 이 환상은 종말의 때를 가리키느니라." 그가 내게 말하고 있을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졌으나, 그가 나를 만져 일으켜 세웠다. 그가 또 이르되,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네게 알게 하리니, 이는 정한 때에 끝이 있으리라." 다니엘 8:17-19.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보라'고 일러 임무를 시작하는데, 이는 다니엘에게 다음 사실을 숙고하라고 알리는 것이다. 다음 사실은 레위기 26장의 두 차례의 '일곱 때' 중 '마지막 진노'가 1844년에 끝난다는 것이다. '마지막 진노'는 '끝날' '정한 때'가 있으므로 시간 예언으로 직접 규정된다. '진노'는 그 종결을 위한 '정한 때'가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야 한다. 만약 '진노'가 단지 하나의 시점에 불과하다면 끝이 있을 수 없고, 그저 그것이 일어난 순간을 가리킬 뿐일 것이다.

"진노"에는 정해진 끝점이 있으므로, 그것은 한 기간의 끝을 가리킨다. 그 기간은 "마지막 진노"로 표현된다. 마지막이 있다면 처음도 있어야 한다. "처음 진노"는 다니엘서 11장에서 확인되며, 거기에서도 그것은 기간을 의미한다. 이는 교황권이 그 "진노"의 끝까지 "행하여 형통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 몇은 넘어질 것이니, 이는 그들을 시험하여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려 함이며, 끝날 때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아직 정한 때가 있기 때문이다. 또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스스로를 높이며 모든 신들보다 자신을 크게 하고,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기이한 말을 할 것이며, 진노가 마칠 때까지 형통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다니엘 11:35, 36.

이 두 구절에서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신을 높이는 그 왕이 주된 대상이다. 36절은 바울이 의역하여 인용한 구절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죄의 사람'을 지목한다.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암흑시대의 박해는 35절에서 지목되며, 그것은 '종말의 때'였던 1798년까지 계속되는데, 그때가 '정한 때'였다. 이어 36절은 교황권이 '진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형통할' 것이라고 밝힌다. 그 구절은 교황권이 1798년까지 형통했으며, 그 시점에 첫 번째 '진노'가 '이루어졌다'고 밝힌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교황권이 1,260년 동안, 곧 '종말의 때'였던 1798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정하였다'.

첫 번째 "진노"는 1798년에 끝났고, "마지막 진노"는 1844년에 끝났다. 이 두 진노는 특정한 끝이 있는 기간으로 제시되어, 둘 다 시간 예언으로 식별된다. 가브리엘은 Palmoni로부터 1844년 10월 22일을 지목한 "저녁과 아침"(날들)의 "모습의 환상("mareh")"을 다니엘이 이해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는 그 날짜에 대한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다니엘이 이해하고자 했던 13절의 "chazon" 환상은 1798년 "끝의 때"에 끝난 유린의 환상이었다. 14절의 "mareh" 환상은 1844년 10월 22일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끝났으며, 이는 2,300년의 기간 예언의 성취이자 2,520년의 기간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다. 그 두 기간 예언은 하박국의 거룩한 표들에 제시되어 있으며, 화잇

자매는 그것들이 주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고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배워야 할 교훈이 많고, 내려놓아야 할 것도 매우 많다. 하나님과 하늘만이 무오하다. 소중히 간직한 견해를 결코 포기할 필요가 없고, 결코 의견을 바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단호하게 고집하는 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그 연합을 가질 수 없다." 리뷰 앤 헤럴드, 1892년 7월 26일.